

일제시대 열녀 담론의 향방:

독립운동가 아내의 '순종(殉終)'과 그 맥락

이상경*

〈차례〉

1. 머리말
2. 근대의 '열녀전'으로서 윤덕경의 '순종' 사건
3. 구여성과 신여성의 거리
4. 강요된 '순종'과 선택된 '정사(情死)'
5. 일제시대 열녀 담론의 향방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 현정건(玄鼎健)이 죽은 지 40일 만에 뒤따라 음독자살한 윤덕경(尹德卿)의 삶과 그녀가 남긴 유서, 이 사건에 대한 당대인의 보도 및 논평 등을 분석하여 일제시대 상황에서 '열녀'와 '순종(殉終)'의 의미 맥락을 살핀 것이다.

상층 양반집안의 딸로 태어나 현정건과 가문 결혼을 한 윤덕경은 실제로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 남편은 곧바로 집을 나가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기생 출신의 현계옥이란 기생과 애인이자 동지인 관계에 있었다. 초기에 윤덕경은 남편을 찾아 상해에 갔으나 남편은 윤덕경을 돌려 보내었고 돌아와서는 신식 교육을 받아 교사로 생활하기도 했다. 현정건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윤덕경은 비로소 남편 곁에서 병수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6개월 뒤 현정건이 죽고 윤덕경은 뒤따라 '순종'했다. 그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동안 현계옥과 현정건의 연애담을 전했던 우수한 신문 잡지는 이번에는 윤덕경의 죽음을 크게 보도했다.

윤덕경이 살아 있는 동안 공적 담론 공간에서 현정건의 아내는 현계옥이었고 윤덕경이 죽음을 선택한 뒤에야 당시의 신문 잡지는 윤덕경이 현정건의 아내였음을 대서특필했다. 또한 당시 윤덕경의 죽음에 관심을 가졌던 민족주의자들은 윤덕경의 죽음은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열정으로 살아서 남편의 사업을 잇는 민족의 아내,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역으로 윤덕경이 열녀도, 민족의 어머니도 아닌 존재로, 그런 공동체의 가치에 속하지 않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윤덕경은 공적 담론 공간에서 처음으로 현정건의 아내임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윤덕경의 죽음은 '도리(道理)'에 내어 몰린 이전 시대의 '순종'과는 달리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낭만적 사랑'의 한 형태인 '정사(情死)'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윤덕경의 '순종'과 그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열녀전은 이제 더 이상 열녀 담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핵심어: 열녀전, 열녀 담론, 윤덕경, 현정건, 현계옥, 순종(殉終), 민족의 어머니, 양처현 모론

1. 머리말

동아일보 1933년 2월 12일자에는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라는 제목으로 남편 현정건(玄鼎健)이 죽은 지 40일 만에 뒤따라 음독자살한 윤덕경(尹德卿)에 관한 기사와 그녀가 남긴 유서가 실렸다. 현정건은 1910년 이후 중국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8년 체포되어 4년여 옥고를 치르고 나와 그 여독으로 죽은 인물이다. 그리고 애인 현계옥(玄桂玉)이 기생의 몸으로 현정건을 쫓아 중국으로 탈출하여 독립운동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런 현정건의 '본처' 윤덕경의

사망 기사 다음날, 동아일보는 제1면에 사설로 「변치 않는 정과 의리; 현 정건 부인 윤덕경 여사 자살사건의 사회적 의의」라는 논평을 실었다. 또한 1933년 3월1일자로 발간된 월간지 『신가정』과 『신여성』에는 좀 더 자세한 윤덕경의 일대기와 그녀의 자살에 대한 당대인의 논평이 실렸다. 이 기사들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여성의 행적과 그에 대한 논평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가히 근대에 입전된 ‘열녀전’이라 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이 근대의 열녀전을 대상으로 윤덕경은 과연 ‘순종’한 것인가? 윤덕경의 죽음을 기록하고 논평한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의 의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7세기 이래, 남편을 뒤따라 죽은(從死, 殉終) 여성만을 ‘열녀’로 치부한 과도한 열녀 담론이 근대에 어떻게 변형되는지, 식민지 지배자와 거기에 맞섰던 민족주의자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거기에 대한 여성 자신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윤덕경의 가족 관계와 윤덕경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녀가 남긴 유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사회의 반향 등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시대 여성의 ‘순종’에 대해 ‘부부’를 중시하는 여성의 주체적 결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열녀전 속에서 조선시대 유교 가부장제의 균열을 읽어내고자 하는 시선¹⁾과 남편 없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정도의 철저한 가부장 사회에서 세뇌되어 죽음으로 내몰린 것²⁾이라는 대립된 해석에 대해, 그런 주체적 결단은 경제적 자립과 남편의 부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일제시대의 윤덕경 정도나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둘째, 식민지 지배자는 여성교육의 목표로 ‘양처현모론’을 내세우는 한편 지역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봉건적 유생들을 회유하는 방

1) 대표적인 것으로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진단학보』 85(1998), 175면;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도서출판 월인, 2006, 179~187면.

2) 대표적인 것으로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특히 558면 주 19)와 주 21).

책으로 조선시대의 정표(旌表)정책³⁾을 이어받은 ‘효자 열녀 포양(褒揚)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정책으로 권장한 열녀의 덕목은 단지(斷指), 할고(割股), 순절(殉節), 종사(從死) 같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과부가 직업을 가지고 아들을 길러내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유생들은 위정척사파의 과장된 열녀담의 전통 속에서 단지, 할고, 순절 등을 찬양하는 의례를 벌였다. 대한제국기의 ‘국민의 어머니’론⁴⁾을 계승한 민족주의자들은 ‘양처현모론’⁵⁾과는 별로 갈등하지 않았지만 유생층의 열녀 타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민족주의자들은 윤덕경의 죽음을 ‘삼종지도’ 혹은 ‘열녀불경이부’라는 낡은 관념에 따른 죽음이라고는 보지 않았고, 민족적 절개의 상징이라고 찬양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윤덕경의 죽음은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열정으로 살아서 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윤덕경 쪽에서 본다면, 윤덕경은 열녀도, 민족의 어머니도 아닌 존재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셋째, 윤덕경은 죽음으로써만 비로소 현정건의 아내임을 공인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리(道理)’에 내어 몰린 이전 시대의 ‘순종’과는 달리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낭만적 사랑’의 한 형태인 ‘정사(情死)’에 가까운 것이다.

-
- 3) 조선왕조는 유교적인 지배윤리를 위한 도덕 규범을 장려하기 위해 효자, 순손(順孫), 의부(義夫), 절부(節婦)들을 매년 뽑아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정문(旌門), 복호(復戶), 상직(賞職) 상물(賞物) 등으로 정표하도록 하였다(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7, 3면).
 - 4) 이에 관해서는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 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9, 1996.8 참고.
 - 5) 김수진은 ‘양처현모’라는 용어에 대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모의 역할을 중시해 ‘현모양처’로 바꾸어 사용했다는 통념이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없고, ‘현모양처’라는 용어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현모’가 한국의 전통으로 당연시 된 것은 1970년대 신사임당의 국가영웅화 작업 이후이기에 식민지 시대에는 ‘양처현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김수진,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사회와 역사』 80, 2008, 228면). 본고도 김수진의 견해를 따른다.

2. 근대의 ‘열녀전’으로서 윤덕경의 ‘순종’ 사건

윤덕경은 죽음으로이기는 하지만 공적 공간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던 드문 구여성이다. 신소설이나 근대 초기 단편 소설에서 구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공간은 전근대 시대와 다름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통 시대 여성의 삶의 고단함과 다른,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여성의 자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⁶⁾ 1920년대 현진건의 단편소설 『빈처』(1921)나 『술 권하는 사회』(1921), 『타락자』(1922)에서 여성 인물은 부화 방탕한 지식인 남편에게 희생되는 헌신적인 구여성이고 이런 순진무구한 인물을 통해 지식인 남성의 부박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진건 소설의 구여성은 순진무구함과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써 남편을 반성하게 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뿐 자의식을 가지고 자각해 가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소설적 장치일 뿐, 구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심훈의 소설 『직녀성』(1935)이 구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던 가장 진지하고 성공적인 노력일 것이다.⁷⁾ 그런 만큼 현실에서 자기의 행적을 공적 공간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된 윤덕경의 경우는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구여성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윤덕경의 ‘순종’ 관련 기사는 이전이나 이후의 열녀 관련 기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관련 기사를 목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6) 신소설 중에서 청상과부가 신남성과 재혼하는 이해조의 『홍도화』는 예외적이다. 이광수의 단편 『무정』(1910), 김편주(金扁舟)의 『청상(靑孀)의 생활』(1920), 나혜석의 미완의 단편 『규원(閼怨)』(1921) 등은 어려서 과부가 된 여성의 수난을 소재로 하고 있다.
- 7) 이에 관해서는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19, 2001, 174~200면 참고.

-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 부군을 뒤따라 필경 음독, 고현정건 씨 미망인 작야 자살, 부군이 간 뒤 41일 동안 가사를 정리, 종용히 독약 마시고 따라간 윤덕경 여사, 혈루(血淚)에 점철된 망명가 가정, 『동아일보』, 1933.2.12.
- 「현정건 씨 미망인 윤덕경 여사 순종, 부군 장거를 애통하던 끝에 마침내 10일 밤에 독약 마시고 자결, 간절 구구 단장의 유서, 『중앙일보』, 1933.2.12.
- 사설, 「변하지 않는 정과 의리, 『동아일보』, 1933.2.14.
- 「혈루에 젖은 40년간-고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기, 어둠과 슬픔의 눈물 위에 신의로 세워진 사랑의 탑, 『신가정』, 1933.3.
- 김윤경, 「윤씨 순종과 사회의 여향-신의의 표현, 『신가정』, 1933.3.
- 김미리사, 「윤씨 순종과 사회의 여향-차라리 사업, 『신가정』, 1933.3.
- 박인덕, 「윤씨 순종과 사회의 여향-고상한 절개, 『신가정』, 1933.3.
- 정오성(鄭五星), 「윤덕경 여사 순종 비화(悲話),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 사별(死別) 월여에 부군과 동혈(同穴), 『신여성』, 1933.3.
- 「현정건 씨 미망인 자살, 『신한민보』 1933.3.9.

이들 기사는 윤덕경의 일생을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윤덕경이 한글로 쓴 유서도 사진과 함께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윤덕경이 중국에서 근 20년간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4년여 기간 옥고를 치르고 그 여독으로 사망한 현정건의 아내였다는 것, 남편을 뒤따라 죽었다는 비장함, 그리고 시동생 현진건이 동아일보에 있었다는 것 등으로 해서 당대인들은 윤덕경의 죽음에 더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사건을 상당히 자세하게 쓴 『신가정』과 『신여성』의 기사는 얼핏 보기에 구성 방식이 ①열녀의 가계, ②어려서의 행적, 성품 ③시집에서의 행적, 평가 ④남편의 득병과 열녀의 헌신적 간호 ⑤남편의 죽음과 열녀의 자결이라는 공통적인 서술 단락을 가진 유형화된 문학적 관습을 강하게 보여주면

서도⁸⁾ 실제 디테일은 매우 다르다. 또한 남성 기자에 의해 기록된 윤덕경의 생애와 윤덕경 자신의 유서가 함께 제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열녀전’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윤덕경의 순종 사건을 읽어보기로 한다.

3. 구여성과 신여성의 거리

윤덕경(尹德卿, 1895?~1933.2.11)은 경남 양산에서 대한제국기 고급 관료의 딸로 태어났다.⁹⁾

윤씨는 경상도 양산 땅의 명문 거족의 집에 태어나 현씨 집에 출가할 때까지 다만 가정에서 인습과 봉건적 도덕으로 틀을 짠 엄격한 가풍을 본받아 가며 16세 때까지 자라났다. 이때까지 윤씨의 어린 머릿속에는 “어려서 부모를 따르고, 커서 남편을 좇으며, 늙어서 자식을 다룬다.”는 삼종의 도리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씨는 의외에 오라버니 되시는 윤현진(尹顯振) 씨의 인격적 감화도 적지 않게 받았다. 이 윤현진 씨는 청년지사로 일찍이 망명의 몸이 되어 해외로 돌아다니다가 필경은 상해에서 XX정부의 중요한 자리를 최후로 29세에 역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오라버니의 감화는 ‘힘’과 ‘열’의 적극적 정신을 윤덕경 여사에게 주어왔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윤씨의 순종은 그의 어렸을 때의 환경이 만든 성격과 관념이 벌써부터 결정하였던 것이다.¹⁰⁾

8) 홍인숙, 『봉건 가부장제의 여성 재현-조선 후기 열녀전』, 『조선시대의 열녀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월인, 2001, 245면.

9) 윤덕경의 호적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출생년도는 관련 기사에서 1933년 사망 당시 39세라고 한 것으로부터 역산한 추정치일 뿐이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10) 『혈루에 젖은 40년간-고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기, 어둠과 슬픔의 눈물 위에 신

윤씨는 성격이 꺾 활달하였고 숙덕이 많았으며 재조도 출중하였다고 한다.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 자란 말하자면 구식부인이었으나 (...) 그리고 윤씨의 오라버니 되는 분에 윤현대 씨와 또한 기미년 당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상해로 망명을 하여 끝끝내 그곳에서 별세를 하고만 윤현권(尹顯權)¹¹⁾ 씨가 있다고 한다.¹²⁾

위 인용문에서 윤덕경의 친정 가문을 ‘명문 거족’이라 한 것은 과연 윤씨의 대지주 집안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윤홍석(尹洪錫(奭), 1843~1902)은 동래 출신의 만석꾼이었다. 사천현감과 동래부사를 지냈고 필은, 명은, 상은, 영은, 네 아들에게 거대한 토지를 유산으로 남겼다. 아버지 윤필은(尹弼殷, 호는 傍雲, 1861~1903)은 1886년 문과에 급제한 뒤 대한제국기에는 동래부윤 겸 동래부 감리, 중추원 의관을 지낸 고급 관료였다. 필은은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생활 터전을 동래에서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로 옮겼다. 당시 갓가 사람들은 벼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식들로 하여금 과거를 볼 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윤필은의 재산은 궁궐 못지 않은 집을 짓고 양산서 구포까지 매일 마부를 보내 장을 보이다 식사를 할 정도로 거부였다.¹³⁾ 숙부 윤상은(尹相殷, 1887~1984)은 백산 안희제와 함께 부산 구포의 사립구명학교를 창설했고 1912년에는 구포은행 설립의 산파역을 맡았다. 큰 오빠 윤현대(尹顯泰, 1889~?)는 국내에 있으면서 백산상회를 거점으로 임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1918년 백산상회 발기 당시 대표였고 1919년 2월에는 안희제, 최준과 함께 백산무역주식회사의 발기인이었다. 동아일보 창간 당시 발기인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¹⁴⁾ 작은 오빠 윤현진(尹顯振, 1892~1921, 호

의로 세워진 사랑의 탑, 『신가정』, 1933.3.

11) 윤현진의 오식.

12) 鄭五星, 『윤덕경 여사 순종 비화(悲話),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 사별(死別) 월여에 부군과 동혈(同穴)』, 『신여성』, 1933.3.

13) 김승, 『독립운동가 우산(右山) 윤현진(尹顯振)의 생애와 활동』, 『부산의 근대자본가 청운 윤상은의 일생』, 부산근대역사관, 2010, 228면.

는 右山)은 1908년 사립 구명학교 제1회로 졸업한 뒤 서울의 배재중학에서 공부했다고 한다.¹⁵⁾ 1912년 경 일본 명치대학 법대에 입학했다. 재학 중 조선유학생 학우회 총무를 지냈고 1916년에 귀국 후에는 대동청년단으로 활동했다. 경남은행 마산지점장으로 있다가 1919년 3.1운동 후 중국으로 가서 상해 임정 초대 재무차장을 지내면서 거금을 내어 임정의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기도 했다. 1921년 10월 상해에서 병으로 요절했다.¹⁶⁾ 이처럼 윤씨 일가는 경주 부호 최준과 연합하여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자본으로 성장하였고 임정을 지원하는 거대한 자금원이기도 했다.¹⁷⁾

요컨대 윤덕경의 아버지는 개항장 부산에서 일했던 개명 관료였고 오빠들은 신교육을 받고 학교도 세우지만 윤덕경은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가 1910년 경 16세에 3살 위인 현정건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

남편이 된 현정건(1893~1932.12.30)¹⁸⁾은 대구 출신 소설가 현진건의 셋째 형이다. 1905년에 서울로 가서 배재학당을 다녔다고 하는데¹⁹⁾ 1908년 5월에 서울의 사립해동신숙 영어과를 졸업했다는 기록도 있다.²⁰⁾ 1910년 대구에서 결혼한 지 3일 만에 현정건은 집을 떠났고 “그 길로 바로 어떠한 뜻을 품고 상해로 떠나가 버렸다는 소식이 시택 편으로 몇 다리를 건너서”²¹⁾ 들려왔다. 이때 둘째 오빠 윤현진과 남편 현정건이 동갑

14) 차철욱, 『근대 부산의 경제인 윤상은의 생애와 활동』, 『부산의 근대자본가 청운 윤상은의 일생』, 부산근대역사관, 2010.

15) 『윤현진 씨의 장의; 군의 약력』, 『상해 독립신문』, 1921년 10월 5일.

16)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17) 이동연, 『백산 안희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http://www.i815.or.kr//media_data/thesis/1994/199412.html

18) 현정건의 출생년도는 보훈처의 기록에 의하면 1887년이다가 이번에 2012년 12월의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면서 1893년 6월 29일로 바뀌었다.

19) 장세운, 『읍민 현정건 선생: 단결투쟁의 염원을 실현한 민족유일당 운동의 산파』,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2012.12.

http://www.mpva.go.kr/narasarang/month_hero_view.asp

20) 『해동졸업』, 『황성신문』, 1908년 5월 7일.

21) 『혈루에 젖은 40년간-고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기』, 『신가정』, 1933.3.

친구여서 윤덕경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함께 상해로 갔다는 설도 있다.²²⁾ 상해로 갔다가 윤현진은 돌아와서 다시 일본으로 가고 현정건은 그곳에 계속 있었다는 것이다. 결혼식만 치르고 달아난 신랑 현정건의 행적은 당시로는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다. 현정건과 윤덕경, 두 당사자는 서로 본 적도 없이 가문 결혼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극단적인 예는 소설가 이기영의 경우이다. 이기영은 14세 때 할머니의 회갑에 손주 며느리를 함께 맞이하고 싶다는 어른들의 성화로 억지로 결혼을 ‘당’하고 그 결혼을 유학과 맞바꾸어 결혼식만 치르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수차례 회고했다. 게다가 1910년은 한일합방이 된 해인 만큼 피가 끓던 청년 현정건은 더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상해 주재 일본 경찰측의 기록에 의하면 현정건은 상업차 상해에 왔고 1911년 5월에 이미 상해 프랑스 조계에 살고 있으며²³⁾ 1914년 3월 당시의 직업도 ‘통관업’이라고 되어 있다.²⁴⁾

현정건이 떠난 뒤 윤덕경은 7년간 대구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지냈다. 그러다가 1916년 경 22세에 남편 현정건을 찾아 시동생 현진건과 함께 상해로 가는 모험을 감행했으나 1개월²⁵⁾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을 공규에서 지나다가 시숙 현진건 씨와 같이 비로소 상해에 있는 남편을 만나고자 황해를 건너갔다. 윤씨 22세 되던 해 모월 모일 상해 부두에서 그리운 현씨를 만난 윤씨는 망연히 현씨를 바라보며 가슴

22) 부산일보사 편, 『어둠을 밝힌 사람들』, 부산일보사, 1983, 309면.

23) 有吉明(上海總領事), 『在留朝鮮人の狀況에 관한 件』, 『不逞團關係雜件-鮮人の部-在上海地方(1)』, 1911년 5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4) 有吉明(上海總領事), 『朝鮮人 排日運動 企劃 狀況에 관한 內報의 件』, 『不逞團關係雜件-鮮人の部-在上海地方(1)』, 1914년 3월 27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5) 『신가정』과 『신여성』에서 각각 3개월과 1개월로 다르게 쓰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윤덕경과 현정건이 함께 지낸 기간이 반년이라고 하는 기사들로 미루어 1개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에 쌓인 회포, 그림던 정, 더구나 만리 이역의 부두에서 사흘 동안 꿈같이 지나던 남편의 얼굴을 보는 감격, 이것은 윤씨이기 때문에 더욱 더하였던 것이다. 마치 새로 결혼한 사람들같이 상해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날부터 조그마한 살림을 시작하였다. 적고 가난하고 부자유하지마는 그이들에게는 새 생활이 움 돋는 살림이었다. 그 살림에서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기운을 얻은 윤씨는 행주치마를 입는 것까지 새로운 감격을 주는 것 같아서 남편을 섬기기에 그야말로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한 때에 불과하였다. 현씨의 상해 생활은 언제 어떠한 폭풍우가 내릴지 모르는 생활이었다. 미어질 듯한 긴장과 추측하기 어려운 변화 속에서 지나는 상해의 청년지사 현씨에게는 윤씨의 정성스러운 내조도 때로는 그의 행동을 견제하는 것 같아서 현씨는 마침내 윤씨를 3개월 만에 귀국케 하였다. 이때 윤씨는 다시 광명을 떠나 암흑으로 걸어가는 것 같이 전도가 암담하였으나 상해에서 얼마 지난 윤씨는 현씨를 새로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으니 이때는 남편 현씨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남편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현씨의 말을 쾌하게 듣고 사랑하는 남편을 험지에 두고 내내 몸 성하기를 축원하며 조선으로 돌아왔다.²⁶⁾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리운 부군을 만나기 위한 단념(丹念)으로 그의 시숙 되는 현 동아일보사 사회부장 빙허 현진건 씨와 동반하여 거친 황해를 건너 한번 상해에까지 간 일이 있었으나 주위의 사정이 허락지 않는 바이므로 약 1개월 동안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뿐 쓸쓸한 발걸음을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었던 것이다.²⁷⁾

26) 『고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기, 어둠과 슬픔의 눈물 위에 신의로 세워진 사랑의 탑』, 『신가정』 3, 1933.3.

27) 鄭五星, 『윤덕경 여사 순종 비화(悲話),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 사별(死別) 월여에 부군과 동혈(同穴)』, 『신여성』, 1933.3.

윤덕경이 결혼 후 7년 만에 상해로 남편 현정건을 찾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구여성으로서의 예사롭지 않은 ‘모험’이다. 남자 형제들이 마음대로 학교 다니고 일본으로 유학 가고 사업하고 있는 동안 윤덕경은 『삼강행실도』나 『내훈』, 『계녀서』 따위를 읽으면서 ‘여공’을 익혔을 것이다. 제1세대 신여성인 나혜석(1896~1948)과 거의 같은 나이와 환경이었는데, 나혜석이 수원에서 삼일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진명여학교에 진학하던 때인 1910년 윤덕경은 열여섯 살의 나이로 부모가 정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다. 나혜석의 경우 대한제국기 관료였던 아버지는 딸이 나혜석이 근대 교육을 받는 것을 반대했으나 오빠의 든든한 지원으로 나혜석은 동경 유학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윤덕경의 경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상태인데 오빠들은 여동생을 공부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물론 애초에 윤덕경 자신이 학교를 다닐 엄두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혜석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행세하는 집안의 딸들은 윤덕경처럼 지내다가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이런 윤덕경이 상해로 가려고 나선 것에서 윤덕경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²⁸⁾

상해에서 남편을 만났으나 현정건은 윤덕경의 출현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위의 인용 기사는 현정건, 윤덕경 두 사람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씌어진 것이기에 두 사람에게 누가 될 말은 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고 있지만 요컨대 현정건이 윤덕경의 출현을 자신에 대한 ‘견제’로 여겨서 아내를 억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1918년의 상해에서 현정건은 독립운동에 관여하고 있었고, 또한 상해는 국제도시

28) 윤덕경이 현정건과 함께 상해로 간 시기도 확정하기 어렵다. 소설가 현정건이 중국 상해에 간 시기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정건의 이 무렵의 행적은 1917년 4월부터 1918년 3월까지 일본에서 성성중학교를 다닌 것은 분명한데 상해에 가서 호강대학을 다닌 시기에 대해서는 1915년 설과 1918년 설이 있다(박현수, 『현정건 소설에서 체험의 문제』, 『대동문화연구』 73, 2011, 321면). 다만 현정건도 1915년 구식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이고, 집안사람 몰래 상해로 형을 찾아갔다는 등의 주변 사람들의 전언으로 미루어 대략 1915년 말~1916년 초입이 아닐까 추측한다.

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현정건은 상해가 윤덕경 처럼 집안에만 있던 여자가 살 만한 곳은 못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자유로운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위 기사에 의하면 윤덕경 쪽에서는 상해에서의 1개월을 통해서 현정건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내로서는 헤어지기 싫었으나 현정건이 하는 독립 운동을 이해하고 그 길에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인데, 상해에서 대구로 돌아온 뒤 윤덕경이 시집을 떠나 서울로 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을 보면 윤덕경이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혹은 남편에 걸맞는 존재로 자기를 바꿔나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무렵 문제가 생겼다. 현정건이 언젠가 고향에 돌아왔던 틈에 기생 현계옥(玄桂玉, 1899?~?)²⁹⁾을 만난 것이다.³⁰⁾ 현계옥은 당시 대구에서 기생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현정건은 친구들과 어울려 기생집을 찾았다가 현계옥과 정분이 난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양쪽 집안 모두 반대했다. 현정건 집 쪽에서는 기생은 안 된다는 것이었고, 현계옥 쪽에서는 돈 안 되는 손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현정건은 도로 중국으로 떠났다. 그러자 1917년 현계옥은 현정건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서울의 다동기생조합으로 적을 옮겼다. 그리고는 곧 정금죽(丁錦竹)³¹⁾, 김남수와 함께 한남권번을 조직해서 다동 기생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한남권번은 서울 출신 기생 중심의 다동기생조합에 맞선 한강 이남 출신 기생들의 조직이었고 현계옥은 한남권번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일등 가는 기생이었다.

29) 현계옥의 정확한 생몰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계옥 관련 기사에서 말하는 나이 등을 근거로 역산해 본 것이다.

30) 백두산인, 「기미(己未)춘(春)에 변장(變裝) 출경(出境) 석일(昔日)은 화류(花柳)명성(明星), 6년간 소식 없는 현계옥 내력 1」, 『동아일보』, 1925년 11월 1일.

31) 정금죽은 3.1운동 이후 정칠성(丁七星, 1897 ~ ?)이란 이름으로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조합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몇몇 동무로부터 한남기생조합을 새로이 창설하여 자기 뜻대로 하고야 마는 성격을 발휘하였더랍니다. 기생 생활을 하는 그의 집에는 날마다 밤마다 풍정 많은 남자들이 모여들던 중 당시 재산 많고 돈 잘 쓰기로 유명한 전라북도 옥구군 전모란 청년이 이 이름 높은 기생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여 같이 한번 살아보았으면 죽어도 원한이 없겠다고까지 애원을 하였으나 멀리 있는 뜻 맞는 남편을 잊어버리지 못하여 항상 그의 간청을 거절하여 오게 됨에 이에 실망한 모는 같은 현가끼리 살면 자가(玆哥)가 된다고 비꼬기까지 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 구변 좋은 그는 현가와 전가가 같이 살면 축가(畜哥)가 된다고 거절하였다는 우스운 소리도 있습니다.³²⁾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지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생 선전 책자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미인보감』에 소개된 원문(2) 무릇 명기 보는 법이 여러 가지니 먼저 용태를 볼 것이요, 둘째 재주를 볼 것이다. 한남 권번 현계옥은 용태도 풍만하여 반점 경박함이 없고 재주도 민첩하여 일본 둔체함이 없으니 이른바 명기라 할지라. 경상도 달성에서 출생하여 일찍 자부(慈父)를 여의고 어린 아우 계향 월향과 우애 있어 지나며 17세 시에 비로소 대구조합에 들어가 예기가 되었다가 19세 시에 다시 상경하여 다동조합에 이름을 실었는데 풍류가무는 쌓이 없을 것이며 겸하여 한문에 망매(茫昧)치 아니하더라. 여러 동무와 한남권번을 창립할 제 운주유악(運籌帷幄)³³⁾에 발종지시(發蹤指示)³⁴⁾한 공로는 가히 이르되 여중지망이라. 한남권번의 기린각 첫 자리를

32) 백두산인, 『가슴은 타는데 불길에 기름 부어, 6년간 소식 없는 현계옥 내력 2』, 『동아일보』, 1925년 11월 3일.

33) 운주유악: 장막(帳幕) 안에서 산(算)가지를 늘린다는 뜻으로, 가만히 들어앉아 계책(計策)을 꾸밈을 나타냄.

34) 발종지시: 매어 놓았던 사냥개를 풀어 짐승이 있는 곳을 가리켜 잡게 한다는 뜻으로,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보임을 이르는 말.

차지할 만하다.³⁵⁾

서울에서 현계옥과 정금죽이 황금정 승마구락부에서 배워 승마를 하고 돌아다녀서 경찰이 이를 금지한다는 등의 기사가 날 정도로³⁶⁾ 현계옥은 서울 장안에서 이름을 날리는 콧대 높은 기생이었다. 그리고 1918년 겨울에 모종의 임무를 띠고 상해에서 돌아온 현정건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현계옥은 현정건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현정건은 인사동의 현계옥의 집에서 여러 가지 모의를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석방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3.1운동 직후 두 사람은 중국으로 탈출했다. 떠날 때 현계옥은 어떤 부자의 돈을 피어 4000원 정도 가지고 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현계옥은 중국여자로 변장하여 탈출했고, 1920년에는 상해로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교민 위로 음악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현계옥은 김원봉에게 간청하여 의열단에 들어갔고 총 쏘는 법을 배우고 말을 탔으며 천진에서 상해로 폭탄을 운반하는 것을 도우기도 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윤덕경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선에 돌아온 윤씨는 남편의 뜻을 도우려며는 행주치마로써만은 만족치 않다고 깨달았다. 아내의 내조가 좀 더 광범위하게 미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된 윤씨는 조선에 돌아온 날부터 단연히 신교육을 받기로 결심하고 23세 되던 해 시가의 동의를 받아 경성으로 떠나와 태화여자학원에 입학하여 비로소 보통학교의 과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원래 총명하며 또 각성 끝에 배우기 시작한 윤씨의 학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하여 그 학교를 마칠 때까지 평균 98~9점의 성적을 내이었다. 그뿐 아니라 학교 당시에 자습한 자수는 천재의 말을 들어 졸업 후 즉시 진명학원과 여자미술 학교에서 후진을 위하여 자수의 교편을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후

35) 백두산인, 앞의 글.

36) 『화류계의 기마열』, 『매일신보』 1918년 3월 5일; 『기생 기마금지』, 『매일신보』, 1918년 3월 27일.

일 남편의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서 근검저축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끼어 순종하던 날까지 들어있던 가회동 177번지 13호의 집터를 사서 손수 설계를 하여 10여 칸 집을 짓고 남편 현씨가 돌아오기까지 시골 친척의 아이를 두고 공부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³⁷⁾

(전략) 늦게서리 태화여자학원을 졸업하였고 그 후 자학, 독습 등으로 지식을 계발하여 왔으며 모교인 태화여자학원과 여자미술학원 등의 자수 선생으로 교편을 잡은 일도 있다고 한다.³⁸⁾

대구로 돌아온 윤덕경은 시가의 동의를 얻어 서울로 가서 태화여자학원에 입학해서 보통학교 과정을 수학했다. 구여성이었던 윤덕경이 비로소 근대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윤덕경이 다녔다고 하는 ‘태화여자학원’이란 ‘태화여자관’에서 운영한 사설학술강습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설학술강습회는 1920년대 교육열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나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번성하였고 ‘학교와 유사한’ 교과과정과 학년제를 구비한 상시적 교육기관이었다.³⁹⁾ 태화여자관은 1921년 4월 미국 북감리교 부인 선교부 출자로 명월관 인사동 지점인 태화관 자리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다.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과정으로 “이미 가정에 든 여자로서 어려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를 위하여⁴⁰⁾ 처음에는 강습회 형태로 영어, 일어, 한문, 산술을 가르쳤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5월에는 야학과까지 개설했다고 한다.⁴¹⁾ 즉 정규 과정의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혼한 구여성을 위한 기관이었다.⁴²⁾

37) 『혈루에 젖은 40년간-고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기』, 『신가정』, 1933.3.

38) 정오성, 『윤덕경 여사 순종 비화(悲話)』, 『신여성』, 1933.3.

39) 김부자 지음,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조경희·김우자 옮김, 일조각, 2009, 84~87면.

40) 『조선여자의 대복음: 태화여자관 설립』, 『동아일보』, 1921년 3월 25일.

41) 1921년 4월(『태화여자관 야학과 개설』, 『동아일보』, 1921년 5월 18일).

42) “백오십 명의 학생들 중에 처녀보다 새파란 색시님네들이 많으며 또 그중에는 당

윤덕경이 대구에서 서울로 가게 된 시기가 상해에서 돌아와 곧바로인지, 아니면 좀 있다가인지, 그리고 현계옥이 현정건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한 사건 전인지 후인지 확정할 자료는 없지만 태화여자학원이 문을 연 것이 1921년 4월이니 윤덕경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현계옥이 현정건을 따라 중국으로 가고 난 이후이다.

사실 현정건은 상해로 온 윤덕경을 도로 대구로 돌려보낼 때에는 윤덕경이 상해에서 같이 살 만하지 않다는 것, 즉 현정건이 하고 있는 일에 이해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었을 것이고 윤덕경도 그것을 인정했기에 대구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현정건은 정작 기생 현계옥을 ‘연인이자 동지’로 받아들이고 3.1운동 이후 함께 중국으로 가버린 것이다. 게다가 현계옥이 워낙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현정건을 따라서 중국으로 탈출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현정건은 사람들에게 ‘현계옥의 남편’이 되어버렸다. 『동아일보』는 1925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무려 6회에 걸쳐 현계옥과 현정건의 드라마틱한 사연을 소개했는데 거기에는 현정건에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⁴³⁾ 물론 당시의 관습상, 사람들은 당연히 기생 현계옥이 본처라고 여기지는 않았겠지만 신문 기사에서 현정건을 ‘현계옥의 남편’이라고까지 한 것은 윤덕경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지나친 것이다. 이 기사를 쓴 ‘백두산인’은 이돈화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시동생 현진건도 동아일보 기자로 있었던

대 화류항(花柳巷)에 방명을 떨치고 있던 기생들이 전비를 뉘우치고 공부하여 보고자 다니는 사람도 간간 있어서 여성 사회의 가지각색을 다 모아 놓은 학원(『가정 아동을 위하여 신학기부터는 유치원을 빼고 좀 가르쳐 보고자, 태화여자관학원 근황, 『매일신보』, 1923년 3월 21일)이라는 설명과 “뿔박과 학대가 심한 시부모의 가정을 버리고 경성에 올라와 태화여자학원에 입학하여 지금껏 공부를 해오다가” 돈 때문에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을 비판하여 자살을 기도한 경북 안동지방의 여성 권씨에 관한 기사(『시집살이 심하여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 『시대일보』, 1926년 7월 4일) 등에서 이 점이 분명해진다.

43) 이 6회의 연재기사에서 ‘현어풍’이 현정건이다. 현계옥과 현정건의 관계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이고 이후 기생 현계옥을 다루는 글들은 모두 이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고 윤덕경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신현규,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일제 강점기 연예인이 된 기생 이야기』(어문학사, 2010)가 대표적이다.

만큼 기자가 현정건의 본처 윤덕경의 존재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윤덕경은 무시되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시동생 현진건이 형수인 윤덕경을 무시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현진건은 우리 근대문학가 중 누구보다도 구여성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입장이었다(『타락자』, 『빈처』, 『불』 등). 또한 명문 거족의 딸인 윤덕경이 기생인 현계옥과 얽혀 사람들의 입초시에 오르는 것을 꺼려했거나 막아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멀쩡하게 살아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에서 윤덕경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윤덕경이 남긴 유서의 첫머리에서 “생각고 또 생각고 천만번 생각하여도 시숙형님에게 대한 유감이 한두 가지 아니오니”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신교육을 받은 남성들이 너도나도 조혼한 본처와 이혼(하거나 시골에 유기)하고 신여성과 결혼했을 때, 버림을 받고 잊혀진 구여성의 직접적인 목소리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덕경은 스스로 신여성이 되고자 했다. 이후 윤덕경은 줄곧 서울에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자기 힘으로 가회동에 집을 짓고 친척 아이를 데려다 기르면서 살았다. 윤덕경은 특별히 수를 잘 놓아 졸업 후 교사 노릇을 하기까지 했다.⁴⁴⁾ 자수라는 것은 전통 시대의 ‘여공’이었고 행세하는 집 규수였던 윤덕경도 결혼하기 전 열심히 여공을 쌓았기에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928년 4월 12일 현정건은 상해 프랑스 조계 패륙로(貝勒路) 항경리(恒慶里)에서 상해 일본 총영사관 경찰에게 붙잡혀 5월 신의주로 압송되었고 신의주 검사국에 송치되어 ‘상해한인동맹사건’으로 징역 3년을 언도받고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그 사이 현정건의 옥바라지도 했겠지만 다시 윤덕경이 남편 현정건과 함께 하게 된 것은 1932년 6월, 현정건이 만기로 출소한 뒤이다. 현정건이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

44) 윤덕경이 교편을 잡은 곳이 태화여자학원인지 진명학원인지 위 두 기사가 어긋나고 있지만 태화여자학원일 가능성이 많다. 정규 학교 과정을 다니지 않은 윤덕경이 진명학원에 취직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된 이후의 현계옥에 관해서는 모스크바로 갔다는 전언이 있다. 1934년 무렵에는 상해 칼튼구락부(극장)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후 다시 외몽고를 향해 갔다고 한다.⁴⁵⁾

현정건은 오랜 해외 망명과 감옥살이로 병들어 있었고 윤덕경은 자신의 문패를 붙인 가회동 집에서 현정건을 간호한 지 6개월 만인 그해 12월 30일 현정건은 죽었다. 경성의전 병원에서 백인제의 집도로 수술했지만 6일만에 12월 30일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이다. “차마 사람들이 상식용으로 못할 음식물을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두고 먹어온 탓으로 위장이 뚫어지고 이어서 급성복막염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⁴⁶⁾ 뒤에 윤덕경 죽음을 보도한 당시 기사들이 ‘결연 20년에 동거는 반세’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1910년에 결혼해서 1932년에 현정건이 죽었고 그동안 부부로 함께 산 것은 신혼 때 3일, 상해에서 1개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병수발한 6개월, 통틀어도 1년이 안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신문에 실린 현정건의 부고란에 비로소 처음 윤덕경은 현정건의 아내로서 공적 공간에 이름을 알렸다. 이런 생애는 현정건의 아내, 즉 독립운동가의 아내였다는 점에서 일제시대 ‘절반의 독립운동자’⁴⁷⁾라고 불리었던 여성의 삶의 또 다른 한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강요된 ‘순종(殉終)’과 선택된 ‘정사(情死)’

남편이 죽은 뒤 뒤따라서 죽는 ‘중사 혹은 순종’은 17세기 이래 ‘열녀’

45) 「담배 한 대 피어 물고」, 『삼천리』 1935.1.

46) 정오성, 「윤덕경 여사 순종 비화(悲話)」, 『신여성』, 1933.3.

47) 역사학자 서중석은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역사비평사, 2001)에서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펼친 남성들의 아내로, 머느리로 그들을 뒷바라지한 여성들을 이렇게 불렀다. 그 중에서 회고록을 남긴 정정화(『장강일기』, 학민사, 1998)와 허은(『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은 각각 동농 김가진의 머느리, 석주 이상룡의 손주 머느리로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회고했다.

의 덕목으로 일반화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정묘호란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여성이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거나, 수치를 씻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이래에는 죽어야만 열녀가 될 수 있었다. 특별히 개가 강요라든지, 성폭력 같은 ‘훼절’의 위협에 처해 죽음을 택하는 ‘순절’ 외에 외적 강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남편의 뒤를 따라 죽는 ‘순종’도 많아졌다. 여기서 ‘외적 강제’가 없었다는 것은 기록상 그렇다는 것이다. 가문을 위해 ‘순종’을 강요하고 억지로 열녀를 만든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상 주변에서 죽음을 말렸든지, 자식이 있었다든지, 봉양해야 할 시부모가 있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경우이다. 이러한 ‘순종’이 여성에게 부과된 ‘삼종’ 중에서 나머지 둘을 저버리고 남편을 뒤따른 것이 가족주의에 저항하면서 ‘부부’를 중시하는 여성의 주체적 결단이 드러나는 대목인지, 남편 없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의 철저한 가부장 사회에서 세뇌되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인지 윤덕경의 경우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정건 사후 40일만인 1933년 2월 11일 밤, 윤덕경은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시숙, 시숙이여, 이 고적한 형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천만번 생각하여도 시숙형님에게 대한 유감이 한두 가지 아니오니 아내 된 나로서는 잊고자 하여도 잊을 수 없고 또 형수의 지나간 일을 회고하고 앞길을 생각하니 희망 없는 이 인생을 살아 무엇하리요. 차라리 죽어 남편의 뒤를 따라감만 같지 못합니다. 쓸쓸한 세상을 등지고 멀고먼 저 나라로 끝없이 한없이 시숙형님을 찾아서 영원히 갑니다. 시숙이여 많은 수고를 끼치오니 미안한 말씀 어찌 다 기록하리까. 용서하시고 죽은 몸이라도 형님과 한 자리에서 썩고자 하오니 같이 묻어주시고 형편이 돌리는 대로 이 두 백골을 선산에 안장하여 주소서. 우리 내외 사십이 넘었으나 남은 혈육이 없으니 백골인들 거두어 줄 이 없고 불쌍히 생각할 이 없사오니 모든 것을 시숙에게 부탁드립니다. 할 말씀 첩첩하나 눈물이 앞을 가리어 흥장이 막히어 이만 적나이다.

일천구백삼십삼 년 이월 팔일

셋째 형수 상

빛을 정리 못하여 나날이 미루다가 지금 대강 정리하였습니다. 남은 빛은 살림을 방매하여 갚아주소서.

지금 남아있는 그 이전 시기 열녀의 한글유서⁴⁸⁾에 비교하면 윤덕경의 유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짧은 것이지만 ‘삼종지도’나 ‘열녀는 불경이부’라는 윤리 도덕은 들먹이지 않고, 죽어서라도 한 곳에 묻히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또 신문이라는 매체에 사진으로 찍혀 공적 공간에 내보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따져볼 만하다.

그녀의 죽음을 전하는 기사는 윤덕경이 여러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남들이 눈치 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씨는 어떻게든 침착하고 정숙하며 의지가 굳었던지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뜻대로 몰명(歿命)할 때까지 한 집안 한 방안에 사람이 들썩이나 같이 서 자고 있었어도 도무지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따라서 일이 있는 동안 발견도 못하였다 한다.⁴⁹⁾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 많은 열녀전의 장르적 관습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열녀 윤덕경전’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유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윤덕경은 전통적인 열녀가 아니다. 조선시대 열녀의 유서에는 명분과 절의, 천륜, 여자의 도리, 대의, 남편이 먼저 죽어서 더 이상 의지 가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뒤따라 죽을 수밖에

48) 전의 이씨(全義 李氏, 1723~1748)의 『절명사(絶命辭)』, 공인 남원 윤씨(恭人 南原 尹氏, 1768~1801)의 『명도자탄사(命道自嘆辭)』, 서녕 유씨(1807~1831)의 『유서』, 서흥 김씨(1883~1904)의 『김부인 유한서』 등.

49) 鄭五星, 『윤덕경 여사 순중 비화(悲話)』, 『신여성』, 1933.3.

없는 자신의 신세, 사주팔자, 운명에 대한 한탄이 전면에 나와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존재의 근거가 된 남편이 사라짐으로써 자신도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된 신세에 대한 한탄이다. 「절명사」나 「명도자탄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과 그에 따르는 막막함을 절실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열녀의 죽음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데,⁵⁰⁾ 그 잃어버린 것이 사랑하는 남자인지, 삶의 기반인지에 대해서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조선 시대의 여성이 사회적 기대치를 ‘저버리고’ 개인적 감정에 충실하고자 해서 택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변의 만류와 감시는 뒤집어 보면 시부모를 봉양하는 노동을 연장하라는 강요이거나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시선의 역설적 표현이기에 ‘열녀’는 죽든지 죽지 않았든지 모두 그런 주변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에 따른 것이 된다.

그런데 윤덕경의 유서에는 그런 도리라든지 운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유서 첫머리 ‘유감’이라는 단어를 새겨보면 맹목적인 봉건 도덕을 따르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죽어야 하는 이유로 ‘희망 없는 이 인생’을 들었다. 그런데 윤덕경은 그 이전의 ‘열녀’의 상황에 비교하면 주변에서 ‘훼손’을 강요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생계를 걱정할 처지도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삶이 차단된 그런 막막한 처지도 아니었다. 윤덕경은 혼자 사는 동안 친척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기도 했고, 할 일도 있었다.⁵¹⁾ 그런데 죽음을 ‘선택’했다.

윤덕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 현정건과 윤덕경의 부부관계에는

50) 박경주, 「18세기 절명가사에 나타난 사대부가 여성의 순절의식 연구」, 『조선시대의 열녀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월인, 2001.

51) 뒤에 김미리사가 윤덕경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과부가 죽는 이유는 자식이 없다든지 생활비를 얻을 수 없어 굶어죽을 지경이라든지 교양이 없고 이지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라고 했다. 이런 경우라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정이어서 자살하게 되는데 윤덕경의 경우는 자식이 없는 것 하나 뿐이니 자살할 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미리사, 「윤씨 순종과 사회의 여항-차라리 사업」, 『신가정』, 1933.3.

‘의리’는 있었을지 모르나 아직 ‘연애’는 있기 어려웠다. 그런데 중간에 상해에 갔다 돌아온 뒤에 윤덕경은 남편의 사업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학교도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돈도 벌었다. 자기의 힘으로 집을 장만하고 친척 아이도 데려다 키웠다. 남편의 동지가 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한 것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윤덕경은 1931년 9월19일의 경성여자소비조합 임시대회에도 참석하기에 이른다.⁵²⁾ 그러나 현정건이 병사하면서 윤덕경이 되고자 했던 ‘애인이자 동지’는 현실에서 불가능해졌다. ‘희망 없는 인생’이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윤덕경은 죽음으로써 현정건의 ‘아내이자 동지’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죽은 몸이라도 형님과 한 자리에서 썩고자 하오니’라는 대목에서 그런 뜻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전통 시대의 열녀도 같은 곳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해로’하지 못했기에 의리를 지켜 한 곳에 묻히겠다는 의미였다. 윤덕경은 살아서는 독립운동이나 현계옥 때문에 남편과 한 자리에 있지 못했으니 죽어서는 한 자리에 있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윤덕경을 그것을 이룬 셈이다.

윤덕경의 죽음을 전하는 기사에는 이번에는 현계옥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윤덕경의 외로운 23년이 오롯이 현정건의 독립운동 탓만은 아니고 기생이었던 현계옥 탓도 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실상 현정건의 죽음을 전하는 기사에서부터 현계옥은 사라졌다. 기사를 쓰고 현정건을 기리는 이들은 현정건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생애에 여자 문제를 끼워 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52) 京城 鍾路警察署長, 京鍾警高秘 제11619호 『京城女子消費組合-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思想에 關한 情報綴(1)』, 1931년 09월 21일 발송. 관계자는 劉英俊, 徐石田, 韓晨光, 金相舜, 禹鳳雲, 金淑, 黃信德, 吳春子, 孫洪禮, 閔惠極, 李明玉, 陸實順, 金繡準, 尹德卿, 申義光 등이었다. 이 문건 속의 윤덕경이 동일인이라는 확증은 없다. 그러나 당시에 같은 이름으로 여성단체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한 다른 여성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경성여자소비조합’이라는 것이 당시 근우회에서 반찬거리나 여성들의 공예 생산품을 직거래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인 점에서 자수에 뛰어났던 윤덕경이 이 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동지’로서 독립운동 선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던 현계옥도, 본처의 자리를 지키면서 옥바라지하고 병수발한 윤덕경도 모두 독립운동가의 삶에서 침묵 당했다.⁵³⁾ 그런데 윤덕경은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그런 공모된 침묵을 깨뜨리고 현정건의 이야기 속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죽어서나마 한 곳에 문힘으로써 비로소 윤덕경은 현정건의 아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윤덕경은 ‘삼종지도’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가문과 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자살한 셈이다.

‘침묵 당한 구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극단적인 한 방식으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윤덕경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현계옥에게서 현정건을 쟁취하여 자기의 남편으로 만드는 의식을 치른 것이다. 그 이전의 많은 열녀들과 윤덕경이 다른 지점이다.

5. 일제 시대 열녀 담론의 향방

갑오경장에서 과부의 개가 허용을 중요한 항목으로 잡을 정도로 ‘열녀 불경이부’는 더 이상 권장할 만한 윤리 도덕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수절을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지 여성 자신이 ‘선택’해서 행하는 수절과 ‘순종’은 여전히 찬양되었다. 계몽기 여성에 관한 담론은 과부개가, 조혼폐지와 여성교육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개화파와 개신유학자들 모두 이를 주장했다. 그런데 과부개가론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순종’한 여성에 대한 기사도 여전히 계몽기 신문들에 실렸다. 기사든 논설이든 이러한 ‘순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열렬히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 자체를 드러내놓고 비판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기에도 여전히 열녀에 대해 포상하고 열녀문을 세우는 제도가 유지되었다.

53) 2012년 12월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현정건을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거기서 현정건의 공적이나 생애를 설명한 글에서도 동지였던 현계옥은 언급되지 않는다. 윤덕경은 현정건을 뒤따라 죽은 아내로 한 줄 언급되었다.

계몽기에도 유인석, 전우, 황현, 김택영, 곽종석 등 전통 유학의 학통을 유지한 인물들은 열녀전을 새로 썼다. 이들이 입전한 30여 편의 열녀전은 당대보다 전대의 인물을 입전하고 열행을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이상 열녀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으로서 과거 여성의 열을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계몽기 위정척사파의 유생들은 전통 윤리 규범을 서양에 대한 도덕적 우위, 또는 서양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천 윤리 규범으로 내세우면서 여성의 ‘순절’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⁵⁴⁾ 나아가 위정척사의 이념하에 의병을 일으켰던 유인석은 여성들의 열행은 중국도 지키지 못하는 문물과 정신을 조선이 보존하고 있다는 ‘소중화’의 증거로 삼고, ‘조선의 조선됨’을 보증하는 존재로서 여성을 민족 담론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호명하였다는 주장도 있다.⁵⁵⁾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전유한 것은 ‘민족’이라기보다는 전근대적인 위정척사의 감각이다.

여성에게 열녀 되기를 원한 것은 위정척사파의 주관적 바람이었을 뿐,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열녀는 존재하지 않았고 담론상으로도 매우 적극적으로 비판되고 있었다. 개화파는 물론이고 개신유학자들도 비판했다.⁵⁶⁾ 『매일신보』에 이광수가 연재한 『무정』에서 영채가 훼손 당하고 대동강에 죽으러 간다는 설정은 열녀전과 흡사하지만, 『무정』은 그런 영채가 죽으러 가다가 중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삼았고 당대의 독자들은 『무정』에 열광했다. 그런 점에서 ‘훼손’ 당하는 영채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을 환유하여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해석은 지나친 것이다.

과거의 것이 아닌 당대 현실에서 벌어진 ‘열행’이 칭송의 대상으로 다

54) 이상 계몽기의 열녀전에 대한 논의는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2002.12), 187~211면을 참고함.

55) 김남이, 「유인석: 민족의 호명과 여성」,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 이혜순 외, 집문당, 2003, 405~434면.

56)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혜인, 2009.

시 공공 담론의 영역으로 나오는 것은 식민지 지배자에 의해서이다. 남편이 죽은 뒤 뒤따라 죽은 여성의 기사는 계몽기의 신문에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그 기사는 짤막하게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보도할 뿐이고 간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열녀비를 세웠다는 후속 보도가 뒤따르기도 하였다. 기사화 된 것을 보면 구체적인 효나 열의 내용은 전통 시대와 다르지 않다. 뒤따라 죽는 것 외에 손가락을 잘라 수혈했다거나 살점을 베어 고아먹이는 행위 등인데 이를 표창하는 국가의 정표 정책에 대해 대한제국기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장예원에서 주관하던 정표 정책을 폐지했다가 반발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궁내부로 옮겨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기사가 이 상황을 시사한다.⁵⁷⁾ 그런데 이렇게 회의의 대상이었던 정표 정책을 조선총독부는 다시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하였다.

총독부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효자열녀 포양(褒揚)’이었다. 이것은 합방 직전 데라우찌 통감이 ‘병합조약을 체결한 후 발표한 『유고(諭告)』에도 들어 있는 조항이었다. “천황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본관이 조선을 통할하는 임명을 받아 정사를 베푸는 강령으로 조선 상하 인민에게 효유하노라.”라고 시작하는 『유고』에는 왕실에 대한 예우, 합방에 공이 있는 관료에 대한 포상과 등용 다음의 세 번째 항목으로 민간을 향해 “또 양반과 유생의 늙은이가 능히 서민의 사표될 만한 자에게는 늙은이 대접하는 은전을 주시며, 효자와 열녀의 향당에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장려하여 그 덕행을 널리 알리게” 할 것임을 선언했다.⁵⁸⁾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은 『매일신보』의 사설에서 알 수 있다.

오륜과 삼강은 인생의 본연한 이성(彝性)이요 동양의 고유한 교육이다. 고로 이조 오백년지간에 (중략) 형식적에 귀(歸)할 뿐만 아니라 탁이한 효

57) 『정문복설』,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1일; 『포증하라는 소장』,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9일; 『효열포장 계속』,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6일.

58) 『경향신문』, 1910년 8월 26일. 김홍식 엮음, 『1910년 오늘은』, 서해문집, 2010, 307면에서 재인용.

행과 특출한 열절이 유(有)할지라도 세력과 금전이 무(無)한 자는 민멸(泯滅) 무문(無聞)하여 공의(公義)의 억울함이 왕왕히 유(有)였으니 시(是)가 어찌 포양(褒揚)의 본이라 하리오. 금회에 사내(寺內) 총독이 명치 43년 8월 29일의 유고(諭告)에 기(基)하여 효자 절부를 표창할새 도비(都鄙)와 귀천을 불문하고 정세히 조사하여 일일이 표창장과 금원(金圓)을 사(賜)하였으니 차는 실로 희유한 성전(盛典)이라. (중략) 금일은 인정(仁政)을 시(施)하는 시대라. 기왕과 부동하여 향곡의 미천한 자이라도 근신(謹慎)자수(自守)하여 이행(異行) 탁절(卓節)이 유(有)하면 조가(朝家)에서 표창지전(表彰之典)을 시(施)하고 인리(隣里)에서 경양지영(敬仰之榮)을 수(收)할지니, (중략) 근자에 풍교(風教)가 해이하여 오륜과 삼강이 소여(掃如)하더니 하(何) 행(幸)히 천부의 성(性)을 실(失)치 아니하고 효열을 전(全)히 한 자가 13도 내에 수천인이 유(有)하였다가 특수한 총광(寵光)을 수(收)하니 차는 단히 각 개인의 총광에 지(止)함이 아니오 즉 조선민족 전체의 총광이라 하노라.⁵⁹⁾

조선시대 삼강 오륜을 기준으로 하여 행해지던 효자 열녀에 대한 정표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기에 공정한 방식으로 그것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식민지 지배자는 ‘삼강오륜’이나 ‘열녀’라고 하는 가부장제의 풍습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그것과 타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강제 병합 당시의 「유고」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10년 11월 3일 일제의 ‘천장절(메이지 천황의 생일)에 맞추어 효자 열녀에 대한 표창식을 거행했다.

총독부에서는 당시 서울의 경우 효자, 열녀 각 4명을 선정해서 시상했을 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실화(小說的 實談)’라고 하면서 ‘효자전’, ‘절부전’을 입전하여 『매일신보』에 게재했다. 공식 명칭은 ‘열녀’였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절부’이다. 이들은 청상 과부로서 사업을 일으켜 스스로 돈

59) 「효열의 포양」, 『매일신보』, 1910년 11월 5일 사설.

을 별면서 시부모를 잘 모시고 자식을 열심히 키운 여성이다.⁶⁰⁾ 조선총독부는 순절, 단지, 할고 등의 고전적 사례는 신뢰하거나 장려하지 않고 과부가 된 여성이 경영 수완을 발휘해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것에 가점을 준 것 같다. 즉 체제를 유지시키고 안정시키는 사례- 가부장 없이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여성상-를 장려했다. 이는 ‘양처현모론’에 맞닿아 있다.

위낙에 양처현모론은 삼중지도에 얽매어서 아무런 공민권을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로 하여금 국민의 일원이라는 명분으로 가문 바깥으로 나와 공민권을 획득하고 공교육의 장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한 근대적 여성론이다. 거기서 여성은 국민의 어머니, 국민의 아내로서 ‘이등’ 국민이기는 했으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제국기 지식인들은 ‘국민의 어머니’론으로 전 시기의 ‘삼중지도’론과 ‘열녀불경이부’론을 극복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가 여성 고등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것도 ‘양처현모’였다. 이런 면에서 ‘여성 교육’에 관한 한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민족주의자들은 그리 모순되지 않았다.⁶¹⁾

그러나 열녀 표창에 관해서는 민족주의자들은 부정적이었다. 이미 조선총독부의 정표정책이 처음 시행될 때 미국에서 발행되던 『신한민보』는 “왜국은 한인의 어리석은 풍속을 이용하여 효자 열녀에게 정표를 행하여 인심을 수습코자 한다더라.”⁶²⁾고 정곡을 찌른 바 있다.

이후로 식민지 시기 열녀 관련해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기사는 마을 청년회나 교풍회, 군수나 총독부가 효부와 열녀를 표창했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식이다.

<아산> 충남 아산군은 온양면 읍내리 의생 신영균 씨의 부인 전영숙

60) 「절부전」, 『매일신보』, 1910년 11월 5~6일.

61) ‘양처현모’의 여성교육이념을 공유했기 때문에 일제 말기 많은 여성교육자들이 ‘국민의 어머니’가 되자는 친일의 길로 좀 더 쉽게 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62) 「우롱한인」, 『신한민보』, 1910년 11월 16일.

(47) 씨가 그의 남편이 사망하던 이튿날인 작년 9월1일에 따라서 자살한 일은 본보에 기보한 바이어니와 지난 9월 28일 온양 문묘석전대제를 마치고 이어서 동군 교회주사 한봉찬 씨의 사회로 각면 유림 50여 인과 온양공보 교직원 생도 200여 명이 참집하여 동리로부터 온천리에 통하는 약 2궤 되는 지점에 높이 4척의 석비를 세우고 경숙한 제전을 거행하였다고 한다.⁶³⁾

이밖에도 사회면 기사에는 여전히 단지, 할고, 순절 등의 사례를 들어 마을 사람 혹은 유림이 열녀로 기리고자 한다는 사실이 종종 보도되었다. 군수나 총독이 효자와 열녀를 표창했다는 보도 기사도 자주 있다. 이렇듯 조선총독부의 효자 열녀 포양정책은 현장에서는 과장된 열녀담의 전통을 이어받은 친일적 유생들에 의해 단지, 할고, 순절, 종사 같은 것을 여전히 찬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친일 귀족인 민영휘가 효자, 열녀에게 가락지나 쌀을 보내어 찬양했다는 기사가 종종 등장한다. 그때의 효행이나 열행의 내용을 보면, 딸이 아버지를 위하여 손가락을 잘랐다는지, 아내가 남편을 따라 순절했다는지, 형이 아우를 위해 허벅지 살을 베었다든지, 아내가 아픈 남편을 위해 허벅지 살을 베었다든지 하는 것이다.⁶⁴⁾ 조선 시대 이래의 효자열녀에 대한 정표정책-대한제국기 계몽주의자들이 개혁하고 타파하고자 했던 인습-을 되살려 온존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정건처럼 민족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그 휴유증으로 죽은 남편을 뒤따라간 윤덕경의 ‘순종’을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은 찬양하지 않았다. 개인적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죽지 말고 살아서 ‘사업’을 해야 했다고 했다.

윤씨 부인이, 그 유서에 나타난 교양과 식견으로 보아서, 한갓 옛날 사람의 본을 받아서, 인습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믿지 않고, 제 개성의 넉넉하고도 독립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임을 믿는다. 그러하더라도 그가 남편을 따

63) 「순종한 열녀 비석 세고 표창」, 『동아일보』, 1933년 10월 11일.

64) 「효녀, 열녀, 우애, 각인의 미덕에 민영휘 씨 선물」, 『동아일보』, 1922년 1월 6일.

라 갈 길은 무덤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사회봉사의 길이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만한 열정과 의리를 가진 이가 남은 일생을 세상일에 바치지 아니하고 한 번 죽어 인생을 잇는 길을 취한 것을 비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중략) 윤씨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래 살아서 남편이 위하던 세상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돌이켜보면 더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 되었다고 믿는다.⁶⁵⁾

신문을 통해서 나타난 윤씨의 사실은 여사의 교양이 높다는 것을 미루어 단순히 인습에 눌려서 미망인으로는 살 수가 없다든가 해서 맹목적으로 행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남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정이 두텁고 강하여서 목숨까지 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못한 사업을 자기가 굳이 굳이 살아가면서라도 왜 실현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죽음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⁶⁶⁾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김미리사의 논평이다. 김미리사 자신 일찍 남편과 사별했지만 학교를 세워 여성 교육에 힘쓰고 있던 인물이다. 그전에 김미리사는 조선 여성의 정조를 조선 여성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나는 여자이니까 여자에 대한 자랑의 말씀이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여자는 무엇보다도 그 정조가 세계에 참 비할 곳이 없을 것이외다. 물론 근래에 남녀해방이 되고 과거의 도덕이 퇴폐하여 풍기가 점차 문란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과도 시기의 일시적 현상이니까 말씀할 것도 없거니와 과거의 여자로 말씀하면 참으로 순결하고 고상하였습니다. 청산백옥이나

65) 「변치 않는 정과 의리; 현정건 부인 윤덕경 여사 자살사건의 사회적 의의」, 『동아일보』, 1933년 2월 14일.

66) 김윤경, 「신의의 표현」, 『신가정』 1933.3.

추수부용인들 어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조라 하면 재산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었습니다. 지금에도 어느 지방을 가든지 열녀의 정문이나 비각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서 여자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었으며 또 여자 자신도 그 얼마나 관념이 깊었겠습니까. 나는 중국이나 미주에 있을 때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항상 조선 여자의 정조를 자랑하였고 또 그 사람들도 항상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자의 풍기가 해이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립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자랑거리를 영구히 보존하여 남에게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⁶⁷⁾

“열녀의 정문이나 비각”을 자랑스러워 하는 말은 위정척사파의 논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 김미리사는 나혜석이나 김일엽 같은 제1세대 신여성보다 이전 세대로서, 소란스럽게 등장한 신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근거에 깔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열녀에 대한 비판적 거리는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김미리사가 1933년 초입 윤덕경의 ‘순종’을 이기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살아서 남편을 위한 열정을 ‘남편의 사업’을 잇는 것에 기울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부가 자살하는 데엔 세 가지 까닭이 있는 것 같소. 자식이 없든지 생활비를 얻을 수 없어 굶어죽을 지경이라든지 교양이 없고 이지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문으로 보니 윤덕경 여사는 자식만 없지 나머지 두 조건은 있는 것 같으니 왜 살아서 남편을 위한 열정을 다른 데 기울이지 못한단 말이오.

자살은 죄악이오. 이기주의자의 행동이오. 생각하는 범위가 너무 좁은 이의 할 일이오. 부모가 금지옥엽같이 길러낼 때에 남편이나 따라 같이 죽으라고 길렀겠소? 열녀가 끼치는 정신적 유익은 많소. 그러나 적은 유익을 뛰

67) 김미리사, 『조선인이 본 조선의 자랑-여자의 정조는 세상에 기(其) 비(比)가 없습니다.』, 『개벽』 61, 1925.7. 이때 김미리사는 이미 근화학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 넘는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공헌이 크겠소? 고독과 비통함을 이기고 남을 위해 남편의 사업을 이어서 사업했다라면 몇 배나 더 큰 명예가 자기에게 돌아왔을는지 모르오.⁶⁸⁾

그런가 하면 자신 신여성으로 당시 이혼 상태였던 박인덕 역시 “장하고 굳센 힘을 가지고 자기 남편의 사업을 이어서 그 뜻을 본받아서 여자라든지 조선을 위해서 일했다라면”⁶⁹⁾ 좋았을 것이라고 애석해 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민족’의 아픔이고 ‘민족’의 지조 혹은 절개를 보여준다고 찬양하지 않았다. ‘열녀’는 이미 민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은 계몽기 때의 국민의 어머니로부터 이제 민족의 어머니로 여성 교육의 지향점을 변용했고 윤덕경에게 남편의 사업을 잇는 민족의 아내,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덕경은 죽음으로써 그런 공동체의 가치에 속하지 않는 자결권을 행사했다. 열녀도, 민족의 아내도 아닌 존재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구여성이 신여성이 된 순간이었다.

참고문헌

1. 윤덕경 순종 관련 기록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 부군을 뒤따라 필경 음독, 고 현정 건 씨 미망인 작야 자살, 부군이 간 뒤 41일 동안 가사를 정리, 종용히 독약 마시고 따라간 윤덕경 여사, 혈루(血淚)에 점철된 망명가 가정』, 『동아일보』, 1933.2.12.

『현정건 씨 미망인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 부군 장거를 애통하던 끝에 마침내 10일 밤에 독약 마시고 자결, 간절 구구 단장의 유서』, 『중앙

68) 김미리사, 「차라리 사업」, 『신가정』, 1933.3.

69) 박인덕, 「고상한 절개」, 『신가정』, 1933.3.

일보』, 1933.2.12.

사설, 『변치 않는 정과 의리; 현정건 부인 윤덕경 여사 자살사건의 사회적 의의』, 『동아일보』, 1933.2.14.

『혈루에 젖은 40년간-고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기, 어둠과 슬픔의 눈물 위에 신의로 세워진 사랑의 탑』, 『신가정』, 1933.3.

김윤경, 『윤씨 순종과 사회의 여향-신의를 표현』, 『신가정』, 1933.3.

김미리사, 『윤씨 순종과 사회의 여향-차라리 사업』, 『신가정』, 1933.3.

박인덕, 『윤씨 순종과 사회의 여향-고상한 절개』, 『신가정』, 1933.3.

鄭五星, 『윤덕경 여사 순종(殉終) 비화(悲話), 결연(結緣) 20년에 동거는 반세(半歲), 사별(死別) 월여에 부군과 동혈(同穴)』, 『신여성』, 1933.3.

『현정건 씨 미망인 자살』, 『신한민보』, 1933.3.9.

* 당시의 신문 기사 등 1차 자료는 주석난으로 대신함.

2. 참고 논저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김부자 지음,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조경희·김우자 옮김, 일조각, 2009.

김홍식 엮음, 『1910년 오늘은』, 서해문집, 2010.

박 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중판; 일조각, 1997.

부산일보사 편, 『어둠을 밝힌 사람들』, 부산일보사, 1983.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신현규,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일제 강점기 연예인이 된 기생 이야기』, 어문학사, 2010.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도서출판 월인, 2006.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도서출판 월인, 2002.

이혜순 외, 『우리 한문학사의 여성인식』, 집문당, 2003.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 담론』, 월인, 2001.

허 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해인, 2009.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 연구』, 『국어국문학』 132(2002.12), 187~211면.

김수진,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사회와 역사』 80, 2008.12. 215~255면.

김 승, 『독립운동가 우산(右山) 윤현진(尹顯振)의 생애와 활동』, 『부산의 근대자본가 청운 윤상은의 일생』, 부산근대역사관, 2010, 228~236면.

박현수, 『현진건 소설에서 체험의 문제』, 『대동문화연구』 73, 2011, 315~345면.

이동언, 『백산 안희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1994.

http://www.i815.or.kr//media_data/thesis/1994/199412.html

이상경, 『여성의 근대적 자기 표현의 역사와 의의』, 『민족문학사연구』 9, 1996.8, 55~91면.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9, 2001, 174~200면.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진단학보』 85(1998), 163~183면.

장세윤, 『읍민 현정건 선생: 단결투쟁의 염원을 실현한 민족유일당 운동의 산파』,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2012.12.

http://www.mpva.go.kr/narasarang/month_hero_view.asp

차철욱, 『근대 부산의 경제인 윤상은의 생애와 활동』, 『부산의 근대자본가 청운 윤상은의 일생』, 부산근대역사관, 2010, 218~227면.

Abstract

The Direction of the Discourse of Virtuous Wiv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Sacrificial Suicide” of the Wife of an Independence Fighter and Its Context-

Lee Sang-kyung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life and suicide note of Yun Deok-gyeong, who killed herself by taking poison 40 days after the death of her husband Jeong-geon Hyeon, an independence fighter, and contemporaries' news coverage and commentaries on this incident to explore the semantic context of “virtuous wives” (*yeollyeo*) and “sacrificial suicide” (*sunj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1910–1945).

Born into a family of upper-class scholar-officials (*yangban*) and married to Jeong-geon Hyeon through an arrangement between the two families, Deok-gyeong Yun in fact was not able to lead a marital life with her husband. He immediately left home and immersed himself in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and, during this period, was romantically involved and lived with Gye-ok Hyeon, a former professional female entertainer (*gisaeng*). Although Deok-gyeong Yun went to Shanghai in search of her husband in the early days, she was sent back to Korea, where she received modern, Westernized education and worked as a teacher at one time as well. It was only after Jeong-geon Hyeon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imprisoned, and released that Deok-gyeong Yun was able finally to be together, nursing him. However, Jeong-geon Hyeon died six months later, and she committed “sacrificial suicide.” Major newspapers and magazines that hitherto

had reported the romance between Gye-ok Hyeon and Jeong-geon Hyeon now covered Deok-gyeong Yun's death extensively.

During Deok-gyeong Yun's life, Gye-ok Hyeon was Jeong-geon Hyeon's wife in the sphere of public discourse, and contemporary newspapers and magazines reported with ado that Deok-gyeong Yun had been Jeong-geon Hyeon's wife only after Deok-gyeong Yun had chosen death. By thus "choosing" death, In that she was acknowledged as Jeong-geon Hyeon's wife in the sphere of public discourse for the first time, Deok-gyeong Yun's death can be seen as a "double suicide" (*jeongsa*), a form of "romantic love," which is true to one's own feelings, unlike the obedience of earlier times driven by "duty" (*dori*). In addition, nationalists who took an interest in Deok-gyeong Yun's death at the time criticized her act as mere selfishness and argued that, with such passion, she should have lived on and become the wife and mother of the nation, continuing her husband's work. This inversely signifies that Deok-gyeong Yun exercised self-determination neither as a virtuous wife nor as a mother of the nation but as a being outside such values of a community. It is thus that Deok-gyeong Yun's "obedience" and tales of virtuous wives starring her came no longer to function as discourses of virtuous wives.

Key words : "virtuous wives" (*yeollyeo*), "sacrificial suicide" (*sunjong*), Discourses of virtuous wives, Yun Deok-gyeong, Jeong-geon Hyeon, Gye-ok Hyeon, Mother of the nation, Good wife and wise mother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